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강진경 · 정태연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낭만적 사랑에 있어서 관계지위(커플 대 싱글)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대인관계적 차원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커플 542명(남: 271명, 여: 271명)과 싱글 382명(남: 214명, 여: 168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커플은 안정적 애착특성과 부모에 대해 따뜻한 내적 표상을 지닌 반면, 싱글은 몰두적이고 회피적인 애착특성과 부모에 대해 냉정하거나 양가적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싱글에 비해 커플이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 역시 더 높았다. 싱글보다는 커플이 더 강한 열정애와 이타애 경향을 보인 반면, 싱글은 더 강한 유희애 특성을 보였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및 만족도에서 큰 성차는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유형이 남성들에게서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성들은 안정 및 몰두된 애착성향을 그리고 여성들은 두려운-회피 애착성향을 보였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열정애, 유희애와 이타애 그리고 낮은 실용애 특성을 보였다. 분석에서 성별과 관계지위에 따른 상호작용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개인의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서론

청소년 후기 혹은 성인 전기의 이성간 사랑은 개인의 정체감 및 친밀감 형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이다(Erikson, 1968; Levinson, 1978). 뿐만 아니라, 친밀한 이성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0-005-C00012).

력은 개인이 경험한 발달적 경로나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역사성을 갖는다. 가령, 아동기 때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경험하거나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성공적인 이성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고독감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 (Bowlby, 1973; Hazan & Shaver, 1987). 따라서, 성인 전기에 안정적인 이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성간의 사랑이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사랑이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특성도 반영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가령,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남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이나 규범 혹은 사회화는 남성들과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게 할 수 있다(Chodorow, 1978; Eagly, 1987).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성인 전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낭만적 사랑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은 각 개인이 아동기 때 부모와 경험한 애착 및 자율성, 그리고 성인기의 자아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관계적 특성은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유형 및 사랑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신뢰감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개인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이 싱글 대 커플이라는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1. 사랑의 이론들

애착과정으로서의 사랑: Bowlby(1958, 1973)가 애착이론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이후, 애착이 낭만적인 연인관계를 포함하여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유대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Hazan과 Shaver(Hazan & Shaver, 1987; Shaver, Hazan, & Bradshaw, 1988)는 성인기 남녀간의 사랑관계를 애착이론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이 생애 초기에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겪게되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은 그 개인이 이후에 맺는 타인들과의 관계 특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기 이후까지 계속된다. 이는 아동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성향이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유형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애착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예; 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 Shaver, 1987; Feeney & Noller, 1990; Simpson, 1990) 안정적 유형의 성인들은 높은 자신감과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 태도 및 관계에 대한 높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들은 불안/양가적 유형 또는 몰두된 유형의 성인들은 자신감과 신뢰감의 부족 및 높은 불안수준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회피적 유형의 성인들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무관심, 그리고 자기노출을 거부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Bartholomew(1990)에 따르면, 회피적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때 거부적-회피 유형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수동적인 회피 그리고 독립

성과 자율성에 가치를 두는 성취 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두려운-회피 유형은 타인과의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불신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회피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두 유형간에 차이가 있다.

성인기 애착 성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개인차는 아동기 때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었다(강진경, 2001; Bringle & Bagvy, 1992;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Levy, Blatt, & Shaver, 1996). 즉, 안정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는 반면, 회피적 유형의 성인들은 거부적인 표상을,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혼합된 표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전생애적으로 발달하며,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성향이 이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지, 정서 및 행동적 반응을 안내한다는(Bowlby, 1973) 것을 지지한다.

사랑에 대한 태도: Lee(1970, 1973)는 수년 간 문학과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면접한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사랑이야기 카드 분류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랑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사랑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Lee(1988) 또한 사랑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랑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색깔에 비유하였다. Lee(1973)의 이론에 따르면, 사랑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은 열정애(Eros), 유희애(Ludus)와 우정애(Storge)이며, 이차적 유형은 소유애(Mania), 실용애(Pragma) 및 이타애(Agape)이다.

열정애의 소유자는 사랑을 인생에서 가장 중

요한 것으로 보며 신체적으로 뚜렷한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 유희애의 소유자는 사랑을 일종의 게임이나 즐거운 오락으로 생각하며 사랑에 빠지거나 헌신할 의사가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우정애의 소유자는 사랑을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노골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다양한 관심사의 공유를 선호한다. 열정애와 유희애가 결합된 소유애의 소유자는 의존성과 질투 및 상대방의 사랑을 강박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정애와 유희애가 결합된 실용애의 소유자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찾는다. 열정애와 우정애가 결합된 이타애의 소유자는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타인 중심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후의 연구들은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Lee(1973)의 사랑의 유형을 검증하였다(예, Hatkoff & Lasswell, 1979; Hendrick & Hendrick, 1986; Lasswell & Lasswell, 1976). 특히 Hendrick과 Hendrick(Hendrick & Hendrick, 1986, 1987; Hendrick, Hendrick, & Adler, 1988; Hendrick, Hendrick, & Dicke, 1998)은 Lasswell과 Lasswell(1976)의 50문항 척도를 기초로 이를 수정하여 최근까지 6가지 사랑의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성별, 인종, 이전의 사랑경험, 현재의 사랑 특성 및 자존감 등의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Lee(1973)의 이론은 오랜 기간 동안의 문학 분석과 일반 대중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차원적인 사랑의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Hendrick & Hendrick, 1992). 그러나 동시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lark과 Reis(1988)는 여러 사랑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선행 요인, 매개 변인, 매개 과정 그리고 다양한 사랑의 결과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haver와 Hazan(1988) 또한 여섯 가지의 유형들이 애착 이론에 근거한 세 유형으로 축소, 통합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소유애의 경우 열정애와 유희애의 일차적 유형의 속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개념적인 반론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Lee(1973)가 분류한 사랑의 유형들이 서로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Tompson & Borrello, 1992).

2. 사랑의 관계지위(커플 대 싱글)에 따른 차이

애착이론에 따르면, 성인기의 애착유형에 따라 개인 및 관계의 특성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는 아동기 때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에 상당 부분 근거한다. 예를 들어, 만성적으로 고독한 젊은 성인들은 낭만적인 애착을 안정되게 형성하지 못하며, 이러한 성향은 아동기 때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Hazan & Shaver, 1987; Shaver et al., 1988). 앞서 언급했듯이, 안정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만족스런 이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긍정적인 자아지각, 관계에 대한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및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감 그리고 만족감을 보인다. 반면에, 불안/양가적이거나 회피적 유형의 성인들은 성공적인 낭만적 사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불

안/양가적인 성인들은 자신감의 결여, 높은 불안 수준, 상대방에 대한 낮은 신뢰감, 자기노출에 대한 거부 등의 특성을 보인다. 회피적 유형의 성인들 역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편함, 장기적인 관계형성에 대한 거부, 소극적 자아노출 및 비사교적 성격 특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싱글은 커플에 비해 불안/양가적 혹은 회피적 유형의 애착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젊은 싱글은 아동기 그들의 부모에 대해 불안정한 애착 표상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성향은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기제를 통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Bowlby, 1973; Bartholomew, 1990). 작동모델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둘간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서(Bowlby, 1973), 생애 초기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자신의 행동,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발달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또한, 작동모델은 친밀한 관계의 상황에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지각과 반응 및 행동을 조정한다(Bretherton, 1985). 몇몇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강진경, 2001; Bringle & Bagvy, 1992;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안정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부모가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는 내적 표상을, 반면에 회피적인 성인들은 부모가 차갑고 거부적이었다는 내적 표상을, 그리고 불안/양가적인 성인들은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양가적이었다는 내적 표상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위해 아동기 때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Rubin, 1988), 싱글은 냉담하고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이고 양가적인 부

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인기 낭만적 사랑에서 싱글은 커플에 비해 부모의 양육형태가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애착유형도 안정적이기보다는 불안/양가적이거나 회피적일 가능성이 높다.

싱글은 커플에 비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비사회적이거나 무기력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임으로써(Jones, Hobbs & Hockenbury, 1982), 자아와 관련된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적 측면에서도 싱글은 커플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낮고, 관계를 비판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Jones et al., 1982) 관계에 대한 만족감 역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싱글과 커플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가령, 커플이 싱글에 비해 사랑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싱글이 커플에 비해 개인적 특성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특성들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3. 사랑의 성차

이성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인기 애착특성에서 나타나는 성차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태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차이다. 먼저,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 다른 사회화의 결과로 사회적 행동 특히,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상이한 경험을 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강한 애착 성향과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남성들은 개별성과 타인으로부터의 분리를 지향하도록 사회화된다(Chodorow, 1978; Eagly, 1987; Gilligan, 1982). 성에 따라 다르게 경험한 애착 및 자율성의 발달과정은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율성보다 애착을 발달시킨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친밀감을 더 잘 표현하고 관계에서도 더 많은 친밀감을 원하는 반면, 애착보다는 자율성을 발달시킨 남성들은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할 수 있다.

애착의 4범주 모델에 근거한 몇몇 연구들도 낭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유형의 성차를 사회화의 차이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거부적-회피 성향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두려운-회피 성향(Brennan et al., 1991) 또는 몰두된 애착 성향(Bartholomew & Horowitz, 1991; Scharfe & Bartholomew, 1994)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친밀감이나 의존성에 대해 보다 더 편안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eney, 1994; Kobak & Hazan, 1991).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차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관계 지향적이도록 사회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애착유형의 분포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서(Feeney & Noller, 1990; 1992; Hazan & Shaver, 1987), 애착유형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일관적 결과를 연구대상의 특성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대상의 배경이 비교적 동일한 경우 성차가 거의 없거나 미비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사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성차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랑태도 척도(LAS: Love Attitude Scale)를 이용한 연구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유희애 또는 이타애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소유애, 실용애 및 우정애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열정애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Frezier & Esterly, 1990; Hatkoff & Lasswell, 1979; Hendrick & Hendrick, 1986; Morrow, Clark, & Brock, 1995). 특히, Hendrick과 Hendrick(1987)은 사랑유형과 성적 태도, 자기노출 및 감각 추구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랑을 성에 더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랑 유형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들에게서 이타애와 열정애가 더 높은 반면, 우정애 또는 실용애는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조은혜, 1996; 홍대식, 1996).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성적이고 도구적으로 사회화되었으며(Hendrick & Hendrick, 1987), 여성들보다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하며 연인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더 독자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Frezier & Esterly, 1990)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요약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기 애착과 관련하여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회피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불안 특성이 강할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국내외 연구가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열정애, 유희애 및 이타애의 특성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소유애, 실용애 그리고 우정애의 특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성향 및 사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자아개념이나 신뢰감과 관계만족도에서 나타나는 성차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낭만적 사랑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관계적 특성을 관계지위에 따른 차이와 성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개인의 애착사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탐색하였으며, 관계적 특성으로는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유형, 사랑에 대한 태도 및 신뢰감과 관계만족도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라 여러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1. 참가자

본 연구에는 커플 542명(남: 271명, 여: 271명)과 싱글 382명(남: 214명, 여: 168명) 총 924명이 참가하였다. 커플의 평균연령은 21.3세(SD = 2.5)였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졸이상이 전체의 96.4%였다. 커플의 한달 용돈은 평균 35.4만원(SD = 16.3)이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中下) 이하가 11.5%, 중(中)이 55%, 중상(中上) 이상이 33.5%였다. 현재 연인과의 교제기간은 평균 13.9개월(SD = 18.3)이었으며, 전체 대상자의 46.2%의 교제기간이 6개월 이하로 가장 많았다. 싱글들은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평균연령은 21.29세(SD = 2.56)였다. 이들의 한달 용돈은 평균 29.97만원(SD = 15.20)

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하(中下) 이하가 22.5%, 중(中)이 51.1%, 그리고 중상(中上) 이상이 26.4%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와 측정치

본 연구에서 모든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는 변인의 특성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유형 및 자율성: 부모의 양육유형은 Hazan과 Shaver(1987)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6 문항의 회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3가지 양육유형(따뜻한/반응적, 냉담한/거부적, 양가적/비일관적)을 각각 한 문항으로 측정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은 유은희(1991)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11문항으로 측정하며 신뢰도는 Cronbach α .77과 .82로 나타났다.

성인기 애착유형: 성인기 애착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 척도(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 문항으로 각 문항은 안정적, 몰두된, 두려운-회피 및 거부적-회피 애착유형을 측정한다.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자아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17문항) 및 사회적(6문항) 자아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86(각 하위척도는 .87과 .60)이었다. 또한, Rosenberg(1965)의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84이었다.

사랑에 대한 태도: 사랑에 대한 태도는 Hendrick과 Hendrick 그리고 Dicke(1998)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6가지 사랑의 유형을 각각 4문항으로 측정하며 신뢰도는 Cronbach α .70이었다.

신뢰감과 관계만족도: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empel, Holmes와 Zanna(1985)의 신뢰감 척도(Trust Scale)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중 6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충실성, 예측가능성 및 의존가능성을 각각 2문항으로 측정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77이었다. 관계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avis와 Todd(1985)의 10문항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공(2문항), 즐거움(3문항), 자아존중감(2문항) 및 상호성(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88이었다.

절 차

자료수집은 2000년 5월 4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심리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서 현재 연인이 없는 학생(싱글)에게는 자신이 작성할 설문지 1부를, 그리고 연인이 있는 학생(커플)에게는 자신과 연인이 작성할 동일한 설문지 2부를 제공하였다. 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커플인 경우 연인이 응답하여 봉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그 다음 수업시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1. 부모의 양육유형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효과

변 인	커플 M(SD)		싱글M(SD)		변량분석(F1, 920)		
	남	여	남	여	관계지위	성별	상호작용
아버지 양육유형							
따뜻한	3.24(1.17)	3.34(1.26)	3.08(1.21)	3.02(1.24)	9.10**	.07	.93
냉담한	1.64(.90)	1.57(.89)	1.84(.92)	1.71(.92)	7.80**	2.54	.33
양가적	2.60(1.20)	2.42(1.20)	2.84(1.18)	2.65(1.24)	8.27**	5.17	.01
어머니 양육유형							
따뜻한	3.88(.99)	4.05(1.02)	3.77(1.03)	3.80(1.10)	7.08**	2.07	1.04
냉담한	1.34(.62)	1.27(.64)	1.49(.80)	1.32(.65)	4.47*	7.57**	1.21
양가적	2.09(1.12)	2.07(1.18)	2.19(1.09)	2.19(1.15)	2.21	.03	.02
자율성(현재)							
아버지로부터	3.60(.53)	3.46(.57)	3.52(.52)	3.54(.59)	.00	2.36	4.60*
어머니로부터	3.60(.53)	3.14(.60)	3.51(.55)	3.15(.60)	1.12	115.34***	1.60

주. * p < .05. ** p < .01. *** p < .001.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낭만적 사랑에서의 관계지위(커플 대 싱글)와 성별에 따라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역사, 자아 관련 특성,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측정치에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피험자간 2(관계지위: 커플 대 싱글) X 2(성별: 남자 대 여자) 변량분석(between-subject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내 자유도는 결측치로 인해 분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유형 및 자율성: 부모의 양육유형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은 부모를 상당히 자율적이고 따뜻하게 지각한 반면, 양가적이거나 특히, 냉담했다고 지각하는 경향은 약했다. 먼저, 양육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따뜻한 양육유형은 냉담한(각각 $r = -.54$ 와 $-.44$, $p < .001$) 및 양가적(모두 $r = -.54$, $p < .001$) 유형과 부적상관이 있는 반면, 냉담한 유형은 양가적 유형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각각 $r = .40$ 과 $.38$, $p < .001$). 부모간 양육유형은 따뜻한($r = .30$, $p < .001$), 냉담한($r = .41$, $p < .001$), 양가적($r = .35$, $p < .001$) 등 모든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듯이, 양육유형에서 관계지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차원에서 커플과 싱글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커플보다는 싱글이 부모의 양육방식을 덜 따뜻한 대신 더 차갑고 양가적이라고 지각했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부모의 양가적인 특성에서만 나타났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부모의 양육방식을 비일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성별과 관계지위에 따른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표 2 애착유형간의 상관계수

애착유형	안정	몰두	두려운-회피	거부적-회피
안정	1.00			
몰두	-.18***	1.00		
두려운-회피	-.31***	.18***	1.00	
거부적-회피	-.21***	-.03	.51***	1.00

주. N = 924. *** p < .001.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부모로부터 상당히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자율성간의 상관은 .58(p < .001)로 나타났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율성은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는 없었지만,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해서, 커플인 경우는 남성들이 더 자율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싱글인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었다. 어머니로부터의 자율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어머니로부터 더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애착유형: 성인기 애착특성에 있어서 애착유형간의 상관이 표 2에 그리고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2에서 보듯이, 안정적 애착유형은 나머지 세 유형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몰두 유형은 두려운-회피 유형과 정적상관이 그

리고 두 회피 유형간에도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장 강하게 그 다음으로 몰두적 애착특성을 강하게 보인 반면, 회피적 특성 특히, 거부적 회피특성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관계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싱글에 비해 커플이 더 강한 안정적인 애착특성을 보였지만, 몰두와 두 유형의 회피적 차원에서는 커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에게서 안정적인 애착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두려운-회피 성향은 남성들에게서 더 약했으며, 거부적-회피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다. 성별과 관계지위에 따른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자아 관련 특성: 자아와 관련된 특성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이

표 3. 애착유형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효과

애착유형	커플 M(SD)		싱글 M(SD)		변량분석(F1, 920)		
	남	여	남	여	관계지위	성별	상호작용
안정	3.56(.92)	3.41(.95)	3.08(.95)	2.96(.95)	53.99***	4.52*	.09
몰두	2.91(1.12)	2.67(1.06)	3.23(1.02)	2.91(.90)	16.28***	15.91***	.32
두려운-회피	2.25(1.02)	2.57(1.06)	2.80(1.13)	3.17(1.13)	63.17***	22.55***	.10
거부적-회피	1.97(.96)	2.00(.85)	2.42(1.03)	2.55(1.04)	60.33***	1.73	.64

주. * p < .05. *** p < .001.

표 4. 자아 관련 특성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효과

변인	커플 M(SD)		싱글 M(SD)		변량분석(F1, 920)		
	남	여	남	여	관계지위	성별	상호작용
자아효능감							
사회적	3.49(.55)	3.36(.55)	3.16(.61)	3.17(.56)	46.00***	2.56	3.44
일반적	3.64(.52)	3.38(.48)	3.45(.50)	3.36(.49)	9.35**	27.12***	5.78*
전체	3.60(.45)	3.37(.43)	3.37(.45)	3.31(.43)	23.27***	23.13***	7.13**
자아존중감							
	3.77(.56)	3.62(.54)	3.51(.57)	3.47(.56)	29.64***	6.22*	2.43

주. * p < .05. ** p < .01. *** p < .001.

보고한 자아 관련 변인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았다. 전체적으로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64(p < .001)의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자아효능감에서 싱글보다는 커플의 점수가 각 하위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지만, 일반적 및 전체적 자아효능감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일반적 및 전체적인 수준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연인이 있는 남성들이 나머지 세 조건의 사람들보다 이러한 유형의 자아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싱글에 비해 커플의, 그리고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자아존중

감 수준에서 이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랑에 대한 태도: LAS로 측정된 사랑에 대한 태도 유형들간의 상관이 표 5에, 그리고 각 유형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결과가 표 6에 있다. 먼저, 표 5에서 보듯이, 열정애는 소유애 및 이타애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유희애는 실용애 및 소유애와 낮은 정적상관을, 그리고 이타애와 매우 미약한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용애는 우정애와 정적상관이 그리고 이타애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유애는 이타애와 상당히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표 6에서 보듯이, 싱글에 비해 커플의 열정애와 이타애 수준이 더 높은 반면, 유희애 차원에서

표 5. 사랑의 태도 유형들간의 상관관계

LAS	열정애	유희애	우정애	실용애	소유애	이타애
열정애(Eros)	1.00					
유희애(Ludus)	.03	1.00				
우정애(Storge)	-.06	.04	1.00			
실용애(Pragma)	.03	.17***	.18***	1.00		
소유애(Mania)	.27***	.09**	.03	.03	1.00	
이타애(Agape)	.49***	-.08*	.03	-.13***	.41***	1.00

주. N = 924.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사랑의 태도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효과

LAS	커플 M(SD)		싱글 M(SD)		변량분석(F1, 920)		
	남	여	남	여	관계지위	성별	상호작용
열정애(Eros)	3.19(.75)	2.98(.73)	2.69(.68)	2.64(.66)	73.79***	7.68**	2.79
유희애(Ludus)	2.39(.54)	2.32(.56)	2.54(.58)	2.43(.61)	10.66***	5.72*	.26
우정애(Storge)	2.87(.99)	2.98(.96)	2.96(.90)	3.01(.92)	.97	1.46	.31
실용애(Pragma)	2.30(.72)	2.53(.75)	2.37(.68)	2.57(.73)	1.43	19.57***	.11
소유애(Mania)	3.04(.83)	2.95(.76)	2.96(.77)	2.93(.74)	.92	1.20	.29
이타애(Agape)	3.53(.74)	3.01(.78)	3.25(.83)	2.50(.72)	57.64***	150.64***	5.39*

주. * p < .05. ** p < .01. *** p < .001.

는 커플보다는 싱글의 수준이 더 높았다. 우정애, 실용애 및 소유애 유형에서는 관계지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열정애, 유희애 및 이타애 수준이 여성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실용애 수준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타애 유형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는데, 이는 이타애에서의 성차가 싱글집단에

서 더 컸음을 의미한다.

신뢰감과 관계만족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과 관계만족도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수준과 낭만적 사랑관계에 대한 만족감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신뢰감과 관계만족도는 .75(p < .001)의 매우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표 7. 신뢰감과 관계만족도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효과

변인	커플 M(SD)		싱글 M(SD)		변량분석(F1, 920)		
	남	여	남	여	관계지위	성별	상호작용
신뢰감							
충실성	4.01(.78)	3.94(.74)	3.21(.88)	3.07(.81)	239.79***	3.86*	.53
예측가능성	3.92(.75)	3.96(.68)	3.43(.86)	3.55(.77)	77.06***	2.41	.43
의존가능성	4.17(.70)	4.22(.74)	3.51(.83)	3.43(.86)	190.35***	.09	1.49
전체	4.03(.58)	4.04(.57)	3.39(.66)	3.35(.61)	272.12***	.13	.33
관계만족도							
욕구충족	4.13(.64)	4.03(.69)	3.52(.79)	3.44(.72)	159.59***	3.33	.07
즐거움	4.33(.61)	4.26(.67)	4.05(.72)	3.95(.64)	44.54***	3.78	.13
존중감	4.05(.82)	4.05(.87)	3.63(.87)	3.73(.88)	40.62***	.75	.70
상호성	3.96(.76)	4.06(.74)	3.28(.86)	3.32(.80)	178.87***	1.87	.29
전체	4.12(.59)	4.11(.62)	3.63(.61)	3.61(.55)	153.20***	.15	.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신뢰감 및 관계만족도의 모든 하위차원과 전체적인 수준에서 싱글보다는 커플의 점수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신뢰감 중 충실성 차원에서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았으며 그 외의 모든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다. 또한, 어떠한 차원에서도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전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낭만적 사랑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을 관계지위와 성별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으로는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기 부모의 양육유형 및 자율성, 그리고 자아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자아개념을 살펴보았다. 관계적 특성으로는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유형과 사랑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및 관계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사랑의 관계지위에 따른 차이

본 연구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 있어서 관계지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싱글보다는 커플이 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특성을 보였다. 먼저, 커플은 싱글에 비해 부모의 양육에 대해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는 내적 표상을 지닌 반면 싱글은 냉정하고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이고 양가적이었다는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강진경, 2001; Bringle & Bagvy, 1992;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또한, 성인기의 애착유형에 있어서도 커플은 싱글보다 더 안정적인 성향을 나타낸 반면, 싱글은 커플보다 관계에 몰두하거나 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나 연애 중인 커플이 싱글보다 더 안정적이며, 덜 불안정한 애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Kirkpatrick & Davis, 1994; Kobak & Hazan, 1991; Senchak & Leonard, 1992).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부모의 양육에 대한 내적 표상이 성인기 낭만적 관계에서의 애착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강진경, 2001; Bringle & Bagvy, 1992; Hazan & Shaver, 1987). 이를 애착의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보면, 아동기 때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애착성향이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 속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Bowlby(1973)에 따르면, 타고난 애착 행동체계는 경험에 기초한 내적 작동모델과 결합되어 성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성향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피드백 등의 경험을 통해 발달하게된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기에서의 애착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etherton, 1985; Sroufe & Waters, 197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 자아개념과 관련된 차원에서도 커플이 싱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도 커플은 싱글보다 열정애과 이타애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싱글은 커플보다 유희애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싱글이 커

플보다 이성과의 사랑관계를 덜 진지하게 여기고 따라서 그러한 관계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또한, 관계에 대한 신뢰감과 관계만족도 수준에 있어서도 커플이 싱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데, 가령 싱글은 커플에 비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Jones et al., 1982),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도 낮으며, 관계를 비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et al., 1982).

이렇게 관계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들 역시 성인기의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Bartholomew & Horowitz, 1991;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Simpson, 1990), 안정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긍정적인 자아지각, 관계에 대한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및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감 그리고 만족감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유형의 성인들은 자신감의 결여, 높은 불안수준, 상대방에 대한 낮은 신뢰감, 자기노출에 대한 거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편함, 장기적인 관계형성에 대한 거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커플에 비해 싱글은 자신 및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이와 같은 싱글의 개인적 및 관계적인 특성 때문에, 그들이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크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령 연구 참가자들의 낭만적 사랑의 개인적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싱글과 커플의 특성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관계지위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연인이 있는 커플은 싱글보다 아동기 때 부모와 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이것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기제를 통해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관계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커플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안정적 애착특성은 성인기 때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열정이나 이타적 태도 및 관계에서의 신뢰감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종단연구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애착의 발달 패턴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랑에서의 성차

낭만적 사랑에 있어서 나타난 성차로는 먼저, 개인의 애착사적 측면에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더 높았으며, 연인이 있는 남성들이 그 외 세 집단의 사람들보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율성이 더 높았다. 또한, 아동기 때 아버지의 비일관적이고 양가적인 양육수준과 어머니의 냉담한 양육수준도 남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인기의 애착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들에게서 안정적 및 몰두된 애착성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에게서는 두려운-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자율성과 애착은 전생애 과정을 거쳐 발달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서로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분리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심리적 건

강을 위해서는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발달할 필요가 있지만(Campbell, Adams & Dobson, 1984), 발달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성차가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자율성과 관련해서 정신분석학자 Chodorow(1978)는 분리 개별화 과정이 성역할 정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성 발달에 성차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여성은 주로 관계 속에서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정체감이 형성되는 반면, 남성은 주로 분리-자율성을 통해 형성된다. 특히, 이러한 성차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아는 남성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머니와 분리되어야 하는 반면, 여아는 여성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어머니와의 분리 개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특히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남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Chodorow(1978)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아동기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양가적이거나 냉담했다는 내적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남아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바, 앞으로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성인기의 애착성향에서는 남성들의 안정적인 특성과 몰두된 특성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반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Brennan, et al., 1991)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두려운-회피 특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강한 몰두적 특성과 거부적-회피 성향에서의 유의미하지 않은 성차 등은 연구자들이 예측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Bartholomew & Horowitz, 1991; Scharfe & Bartholomew, 1994)와도 불일치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능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척도는 단일하고 직접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편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Griffin과 Bartholomew(1994)는 애착의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애착의 구성개념을 차원으로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유형 혹은 원형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측정의 타당성 및 신뢰도와 안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측정방법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함의가 탐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상의 문제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애착 역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적합하고 타당한 애착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측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는 애착에 미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영향이 기존 서구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와의 차이를 가져온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거부적-회피성향보다는 두려운-회피성향에 해당된다. 두려운-회피성향은 거부적-회피성향과는 달리 접촉과 친밀감을 원하지만 타인에 대한 불신과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회피성향을 보이는 것이다(Bartholomew, 1990).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필요한 요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의 여

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러한 기준에 상대방이 적합한 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회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랑의 유형에서 여성들의 실용애 수준이 남성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에, 몰두된 애착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상호성과 하나됨에 대한 갈망, 높은 수준의 성적 매력과 질투 등의 특성을 보인다(Hazan & Shaver, 1987). 또한, 몰두된 유형의 사람들은 친밀감에 대한 열망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회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관계 속에서 유대감과 안전기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Chappell & Davis, 1998). 이러한 특성을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강하게 몰두적 성향을 보인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성적으로나 도구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허용적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해석은 이후에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와 관련된 특성에서도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으나 일반적 및 전체 자아효능감에서는 남성들의 수준이 여성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서도 남성들의 수준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성차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임을 함축해 준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남녀간의 사랑관계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결혼 후에는 아직도 많은 경우 남성이 가장으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특성이 개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도 상당 부분 성차가 있었는데, LAS에 있어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열정애와 유희애, 그리고 이타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실용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Frezier & Esterly, 1990; Hendrick & Hendrick, 1986; Morrow et al., 1995)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남성들의 열정애와 유희애의 수준이 그리고 여성들의 실용애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먼저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관계에 있어서 더 자유로우며, 독자적이고, 성적인 태도에 있어서도 더 허용적이고 도구적이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덜 자유로우며, 성적인 태도에 있어서도 보수적이도록 사회화된다고(Hendrick, Hendrick, Slapion-Foote, & Foote, 1985).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관계에 있어서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덜 낭만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들이 주로 남성들의 경제력에 더 의존하는 것과 관련된다(Frezier & Esterly, 1990; Hatkoff & Lasswell, 1979; Hendrick & Hendrick, 1986).

그러나 이타애의 수준에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 이론과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조은혜(1996)는 사랑유형과 성격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이타애와 가장 관계가 깊게 나타난 성격요인은 순응성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또한 학습이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Lee(1973) 역시 이타애의 일시성을 언급하면서 이타적 사랑의 특성은 거의 드물며 한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남성들의 열정과 이타애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Frazier와 Esterly(1990)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사회-정서적인 기술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관계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이며, 파트너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로 하여금 더 열정적이거나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며, 이를 통해 관계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시간의 경과 혹은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보다 안정적인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남성들은 그들의 관계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열정적이거나 이타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들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사랑 유형을 일관되게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해석의 가능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3.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성인전기에 있는 남녀들의 낭만적 사랑과 개인 및 관계특성에 있어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생들로 동질적인 집단이고, 커플의 경우에도 교제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미혼인 대상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에 대한 신뢰감과 관계 만족도 차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지위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경우에도 그 평균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것은 이 두 변인의 효과크기가 작아 본 연구의 결과가 표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복검증을 포함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라 여러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혔지만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로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애착특성과 자아개념 및 사랑의 관계 특성이 보다 포괄적인 연령집단과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발달경로를 거치게 되는지를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 모델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관계지위에서의 변화나 개인 내적 또는 관계 속성에서의 변화 등이 개인의 특성 및 관계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서 관계지위나 성별에 따라 나타난 여러 특성에서의 차이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것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진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조은혜 (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0.
- Acker, M., & Davis, H. (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9, 21-50.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S.,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Shaver, P. R., & Tobey, A. E. (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51-466.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0, pp.3-3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ngle, R. G., & Bagby, G. J. (1992). Self-esteem and perceived quality of romantic and family relationships in young adults. *Journal of Research in*

- Personality*, 26, 340-356.
- Campbell, E., Adams, G. R., & Dobson, W. R. (1984). Family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lark, M., & Reis, H. (1988). Interpersonal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609-67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avis, K. E., & Todd, M. J. (1985). Assessing friendship: Prototypes, paradigm cases and relationship assessment. In S. W. Duck & D. Perlman(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pp.17-3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eney, J. A.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 333-348.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eeney, J. A., & Noller, P. (1992). Attachment style and romantic love: Relationship dissolu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2), 69-74.
- Frezier, P. A., & Esterly, E. (1990). Correlates of relationship beliefs: Gend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331-352.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pp.17-52). London: Jessica Kingsley.
- Hatkoff, T. S., & Lasswell, T. E. (1979). Male-fema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 in conceptualizing love. In M. Cook & G. Wilson(Eds.),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xford: Pergamon Press.
-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 Hendrick, C., & Hendrick, S. (1987). Love and sexual attitudes, self-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281-297.
- Hendrick, C., & Hendrick,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84-794.
- Hendrick, C., & Hendrick, S. (1992). *Romantic Love*. CA: Sage.
- Hendrick, S. S., Hendrick, C., & Adler, N. L. (1988). Romantic relationships: Love, satisfaction, and staying togethe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6), 980-988.
- Hendrick, C., Hendrick, S., & Dicke, A. (1998). The Love Attitudes Scale Short For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2), 147-159.
- Hendrick, C., Hendrick, S., Slapion-Foote, M. J., & Foote, F. H. (1985).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630-1642.
- Jones, W. H., Hobbs, S. A., & Hockenbury, D. (1982). Loneliness and social skill defic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682-689.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81-689.
- Lasswell, T. E., & Lasswell, M. E. (1976). I love you but I'm not in love with you.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38, 211-224.
- Lee, J. A. (1973). *The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Don Mills, Ontario: New Press.
- Levinson, D. (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ew York: Knopf.
- Levy, K. N., Blatt, S. J., & Shaver, P. R. (1996). *Styles of romantic attachment and parental representa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Morrow, G. D., Clark, E. M., & Brock, K. F. (1995). Individual and partner love

- styles: Implications for the quality of romantic involvem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3), 363-387.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95-1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Z. (1988). Prefac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anatomy of love*(pp. vii-xi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charfe, E., & Bartholomew, K. (1994).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adult attachment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s*, 1, 23-43.
- Senchak, M., & Leonard, K. E. (1992).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51-64.
- Shaver, P.,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s.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68-9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Tompson, B., & Borrello, G. M. (1992). Measuring second-order factors using confirmatory methods: An illustration with the Hendrick-Hendrick Love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2, 69-77.

Dating Status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Romantic Love Among Undergraduates

Jean Kyung Kang · Taeyun Jung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271 heterosexual couples and 382 singles (men: 214, women: 168) in an attempt to address both status (couple vs. single) and gender differences in individu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romantic love in adulthood. Regarding status differences, parents of couples in their childhood were judged as more warm and yet less cold and ambivalent relative to those of singles. Couples had a more positive view of self, a more stable attachment style, and higher levels of trust toward and satisfaction with their partners. Couples had higher levels of Eros and Agape and yet lower levels of Ludus than singles. With regard to gender differences, they were small in the trust toward and satisfaction with partners. However, parental child-rearing style tended to be more negative for men than for women. Also, men than women marked a higher score on the secure and a lower score on the avoidance attachment style. Men had a more positive self concept and higher levels of Eros, Ludus, and Agape and yet lower levels of Pragma. Overall, interactions between status and gender were not great across measures of variable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individuals.